

## 한국천주교 평신도사도직단체협의회



### ● 제31회 가톨릭대상 시상식 사랑부문 정희일 씨, 정의평화 부문 오창익 씨 수상

한국천주교 평신도사도직단체협의회(회장 권길중, 담당 손희송 신부, 이하 한국평협)는 지난해 12월 서른한 돌을 맞는 가톨릭대상 수상자로 사랑부문에 정희일 씨(90세)와 정의평화부문에 오창익 씨(47세)를 선정하여 발표했다.

한국평협이 지난 1982년부터 사회회복운동과 함께 제정한 가톨릭대상은 삶의 자리에서 묵묵히 헌신 봉사해 공동선 증진에 크게 이바지한 개인이나 단체를 사랑, 문화, 정의평화 부문으로 나누어 종교와 종파를 초월하여 수상자를 선정하고 있다.

올해 사랑 부문 대상을 수상하게 된 정희일 씨는 지난 1986년부터 영등포에 위치한 무료급식소 토마스의 집에서 배식봉사를 시작

하여 90세가 된 지금까지 28년 동안 어려운 이들을 위해 봉사해 왔고, 이런 모습이 인생의 노년기를 보내는 다른 이들에게 큰 귀감이 되고 있다는 점이 선정의 이유가 됐다.

또한 정의평화 부문의 오창익 씨는 우리나라의 인권을 위해 20년 가까이 일해 왔으며 특히 지난 1999년부터는 뜻을 같이 하는 시민활동가들과 힘을 모아 인권실천 시민연대(인권연대)를 설립하여 각종 인권문제의 개선을 위하여 적극 활동함은 물론 인권교육을 위한 활동에도 힘써 왔다.

시상식은 12월 16일 서울 명동 가톨릭회관 1층 강당에서 열렸으며 주교회의 평신도사도직위원회 위원장 염수정 추기경과 한국평협 담당사제인 손희송 신부가 함께 자리했다.

### ● 2015년도 제48차 한국평협 정기총회 개최 새로운 복음화와 아시아 교회 연대를 위한 사업에 앞장 서기로



한국평협은 지난 2월 14일 서울 명동 가톨릭회관에서 제48차 정기총회를 열고, 새로운 복음화를 위한 사업으로 '답게 살겠습니다' 운동을 전개하고 아시아 교회 연대 강화를 위한 국제협력 등의 사업을 열기로 의결했다.

개막미사에서 한국평협 담당사제인 손희송 신부는 "경제개발 등으로 경제적 풍요를 이루면서도 감사하는 마음은 줄고 있다. 예수님은 어려운 상황에서도 감사할 줄 아는 분이셨다."며 "말로 복음을 선포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우리가 가진 모든 물질, 재능을 나누면 선교는 잘 될 것이다."고 강조했다.

권길중 회장은 인사말을 통해 "우리는 평신도 지도자로서 역할을 하고 있다. 진정한 평신도 지도자라면 예수님과 함께하는 삶이어야 하고 그 영광은 예수님께 올려드리는 삶이어야 한다."며 한국평협이 펼치는 '답게 살겠습니다'

운동을 통해 자신부터 깊이 성찰해야 함을 강조했다.

이번 총회에서는 상임위원 임기를 마친 대전교구 평단협 이명수 회장과 마리아사업회 김석인 신부와 문원주 대표에게 주교회의 평신도사도직위원회 위원장 염수정 추기경 명의로 감사패가 전달됐다. 또한 감사직을 사임한 김춘배 춘천평협 회장을 대신해 의정부평협 문호 회장이 감사로 선출됐고, 김연숙 한국여성단체협의회 회장을 부회장으로 선임하는 데 동의했다.

### 서울대교구 평신도사도직 단체협의회

### ● 서울대교구 평신도사도직단체 신년하례식 서울평협 제45회 정기총회 개최 - 의식개혁 캠페인 전개와 평신도 영성 교육 강화키로 -



서울대교구 사도직단체와 교구장과의 만남의 자리인 신년하례식이 지난 1월 10일 가톨릭회관 1층 강당에서 개최됐다. 서울대교구 평신도사도직단체협의회(회장 권길중, 담당사제 손희송, 이하 서울평협)와 사목국 단체사목부(담당 이정준 신부) 주관으로 개최된 이날 신년하례식에는 교구 인준 47개 단체의 단체장과 임원, 평협 임원 등 160여 명이 참여했다. 2015년 사목교서에 대해 교구 사목국장 손희송 신부의 강의를 들은 참가자들은 교구장의 사목방침을 이해하고 사도직활동의 실천에 큰 도움이 된 시간이었다고 말했다. 점심식사 후에는 국악성가 우리소리합창단의 공연이 이어졌다.

무지카사크라 합창단, 서울 미바회, 연령회연합회는 각각의 단체 소개와 함께 활동에 대해 보고하고, 단체사도직을 통한 활동으로 체험한 하느님을 참가자들에게 나눴다.

신년하례와 서울평협 정기총회 기념미사를 겸한 자리에서 서울대교구장 염수정 추기경은 강론을 통해 "교회는 공동체이다. 교회가 친교를 나누는 것은 선택이 아니라 하나의 소명이다. 가정과 사회 안에서 아낌없이 나누고 하느님 뜻 안에서 성숙한 신앙인이 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기념미사가 끝난 후 서울평협 회원단체와 임원들은 제45회 정기총회를 개최했다.

1호 안건인 2014년 사업보고와 결산 승인, 2호 안건인 2015년 사업계획(안)과 예산(안) 승인은 이의 없이 통과했다. 그동안 공의회학교로 진행되어 온 제2차 바티칸공의회 문헌 교육은 평신도사도직 아카데미로 확대되어 지도자 양성을 위한 교육을 강화할 예정이며, 국민캠페인 전개를 통해 그리스도인으로서 정체성 회복과 사회복음화를 위한 활동에 앞장선다. 또한 평화 네트워크 활동을 위해 새로 평화위원회를 구성하고 위원장에 변진홍 야고보 형제를 임명하여 통일사도직 활동을 펼쳐나가기로 했다.

### ● 평신도사도직 아카데미 공의회과정 개설

서울평협은 지난 2007년부터 제2차 바티칸 공의회 교의의 가르침과 정신을 잘 앎으로써 교회와 사회 안에서 더 헌신적으로 봉사할 수 있도록 양성하기 위하여 제2차 바티칸 공의회 문헌을 공부하는 '공의회과정'을 진행해 왔다.

올해부터 '평신도 사도직 아카데미'로 확대 개편하여 오는 3월 9일~6월 29일까지 매주 월요일 14주간 가톨릭회관 1층 강당에서 상반기 공의회과정을 실시한다. 강사는 조규만 주교, 정순택 주교, 손희송 신부, 정의철 신부, 박준양 신부 등 신학교 교수진과 권길중 평협 회장, 한흥순 전 바티칸 대사 등 한국교회 최고 강사진으로 구성됐다.

## 인천교구 평신도사도직협의회

### ● 평신도사도직협의회 “사랑의 연탄 나눔” 행사 참여



지난 연말 학익동 본당에서 인천교구 총대리 정신철 주교와 청년들(5지구)150여 명, 평신도사도직협의회(회장 정기희, 담당사제 안규태, 이하 인천평협) 임원들이 함께 참여해 ‘사랑의 불꽃 연탄 나눔’ 행사를 3개 조로 나눠 가구당 150장의 연탄을 배달했다.

### ● 평화의 날 미사 및 신년교례회



2015년 1월 2일 교구장 최기산 보니파시오 주교 주례로 세계평화의 날 미사가 봉헌되었다.

최 주교는 미사 중 강론에서 “하느님이 주신 새해에 감사하고 양처럼 착하게 살기 바라며, 하느님의 축복이 풍성하게 내리고 사랑을 주고받으며 영육 간의 건강하기를 기원하고, 가족들이 함께 기도하고 대화하며 봉사하는 성가정이 되기 바란다.”라고 축복했다.

이어서 교구청 4층에서 인천평협 주관으로 교구 사제단과 수도자, 신학생, 교구 단위단체장 및 기관 직원 등이 참석한 가운데 교구 신년교례회를 했다.

### ● 인천교구 M.E 베트남 성지순례



2015년 1월 7일부터 10일까지 인천 ME(담당사제 오병수) 부부 20여 명이 베트남 성지 순례를 다녀왔다. 지난해 ME가족모임행사를 준비하며 인천 ME부부들이 함께 준비한 성금을 모아 베트남 가톨릭 공동체 베트남 후예대교구와 대신학교에 후원금을 각각 전달되었다. 대신학교 피우학장 신부는 “인천교구에서 관심을 보여 주어 감사하다. 베트남은 경제적으로 열악한 상황에서 교구 공동체가 운영되고 있다. 이 후원금은 사제 양성을 하는 신학교를 위해 쓰일 것이다.”며 감사의 인사를 전했다.

### ● 남북통일 기원미사

1월 3일 답동 주교좌성당에서 2015년 첫 번째 ‘남북통일 기원미사’가 교구장 최기산 주교의 주례로 봉헌되었다.

최기산 주교는 “을미년(乙未年) 청양띠 해를 맞아 주님을 향해 마

음을 열고 주님과 상통하는 해가 되기를 바란다. 말씀을 듣고, 기도(대화)하고, 사랑으로 실천하기를 바란다.”며 “남·북한이 화합하기만 하면 우리나라가 전 세계에 큰 역할을 할 수 있기에 계속 기도로써 마음을 모으며, 북한 백성들도 하느님 안에서 행복하고 기쁘게 살도록 기도하자.”고 강조했다.



## 수원교구 평신도사도직협의회

### ● 2015 상반기 총회장 연수 개최

수원교구 평신도사도직협의회(회장 이래수, 담당사제 문희종, 이하 수원평협)는 1월 31일 교구청에서 총회장 및 임원 등 18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지난해 연수에 이어 2회째 「소통」이란 주제로 ‘2015년 상반기 총회장 연수회’를 개최했다.

1부 대리구별 소통사례발표에서는 6개 대리구에서 우수본당으로 뽑힌 총회장들이 소통사례를 발표해 참석한 총회장들과 공감대를 형성해 소통의 진수를 보여 주었다. 2부에선 교구 복음화국장 이근덕 신부가 「교구 50주년 비전 핵심 과제」에 대한 강의를 통해 교구 미래에 대한 궁극한 부분을 시원하게 밝혀 주었으며 3부 파견미사에

서 교구장 이용훈 주교는 “우리는 성당에 다니는 것만을 신앙생활이라 생각하는데 사회에서도 소외된 이웃에 대한 관심과 배려로 신앙생활을 해야 한다. 또한 소통이란 아름다운 친교”라고 말씀하시며 친교를 통한 소통을 강조했다.

수원평협에서는 각 본당의 사정을 교구장께 알리고, 교구장의 복음화 정책을 본당 총회장에게 들려주는 장으로 매년 상, 하반기 교구장 주교와 총회장의 만남 및 연수회를 개최하고 있다.

### ● 축구선교연합회 제12차 정기총회



수원교구 축구선교연합회는 지난해 12월 6일 교구청에서 2014년도 제12차 정기총회를 열었다. 총회는 교구 및 각 대리구 축구선교연합회 회장·부회장·감사 등 임원 17명이 참석해 진행됐다. 특히, 이날 회의에서 ‘총무부’를 ‘사무국’으로 확대 개편하는 안건을 통과시켰다.

윤용현 회장은 “각 대리구 연합회와 하느님 안에서 일치와 화합을 이루면서 축구영성을 키우는데 매진하겠다.”며 “또한 말씀을 생활화하고 선교를 실천하는 공동체로 거듭나기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 ● 사진가회 사진교실 제13기 수료식



수원교구 사진가회는 지난해 12월 22일 수원대리구 원천동성당 지하 강당에서 사진교실 제13기 수료식을 거행했다. 이날 수료식에는 수료자 32명과 사진교실 봉사자 및 사진가회 회원 등 50여 명이 참석했다.

### ● 천지의 모후 레지아 신년하례 미사 봉헌



수원 천지의 모후 레지아는 1월 4일 주님 공헌 대축일 날 교구청에서 교구장 이용훈 주교 집전으로 꼬미시움 간부, 직속 뷔레시디움 간부 130명이 참석한 가운데 신년 하례미사를 봉헌했다.

이 주교는 미사 중 강론에서 “2015년 을미년에는 우리나라가 사회적으로 정치적으로 안정되고 평화스러운 모습이 펼쳐지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이날 661차 월례회의를 주관한 이근덕 신부는 “레지오 단원으로 서 갖추어야 되는 중요한 것은 성

모님께서 보여 주셨던 ‘겸손한 모습, 온유한 모습, 자애로운 모습, 가난한 이들을 헤아리는 모습’들을 우리도 똑같이 실천하는 삶”이라고 강조했다.

### ● ME 수원협의회 지구 및 본당 대표 교육 실시



수원ME는 1월 17일 교구청 지하 강당에서 지구 및 본당 대표 교육을 실시했다.

이날 교육은 35주년 행사 및 미션 수행 홍보, 마재 성가정 시연, 분과 소개 및 소개 개요 작성법과 대리구별 그룹 나눔 순으로 진행됐으며, 총대리 이성호 주교 주례로 파견미사가 봉헌됐다. 이 주교는 미사 중 강론을 통해 “ME 부부는 세상 문화에 물들어 힘들어하는 부부에게 빛과 소금이 되어야 하고 그들을 새로운 문화(그리스도교)로 초대하여야 한다.”고 강조했다.

### ● 성령쇄신봉사회 ‘2015 신년 미사’ 및 밤샘기도회

수원교구 성령쇄신봉사회 ‘신년 미사’가 1월 23일 오후 11시 하우현성당 성령기도의 집에서 400여 명의 신자들이 참여한 가운데 교구장 이용훈 주교 주례로 봉헌됐다.



신년미사 후에는 묵주기도를 시작으로 하찬사(하느님을 찬양하는 사람들, 단장 김성철 프란치스코)와 함께하는 찬양과 찬양선교사 고영민 형제(삼성산 사랑의 성령쇄신봉사회 부회장)의 특강으로 이어지는 '밤샘기도회'가 다음날 오전 3시까지 진행됐다.

이 주교는 미사 중 강론을 통해 "명성황후가 일본인들에 의해 살해된 을미사변 제120주년인 2015년 을미년을 맞았다"며 '시간의 소중함'을 강조했다.

● 제40차 꾸르실료 정기총회



제40차 수원교구 꾸르실료 정기총회가 2월 1일 교구 내 각 대리구·지구·본당 임원 7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교구 영성관에서 있었다.

총회는 1부 영성지도 우종민 신부의 시작기도와 환영사, 성직자 강의, 2부 총회, 3부 파견미사 순으로 진행되었다.

우 신부는 "내 마음속의 아집과 편견을 벗어던지고,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사는 것임을 인식하고 낮추는 자세가 필요하다."고 강조하며 "끊임없이 기도하면서 진정 그리스도인으로서 모범적으로 삶을 살고 있는지 되돌아보고, 참 소통을 사신

예수님을 닮아가는 그리스도인이 돼 달라."고 당부했다.

이번 40차 총회에서 제11대 주교로 안병본당 위계평 형제가 임명됐다.

● 천지의 모후 레지아 청년단원 기본단계 피정



수원 천지의 모후 레지아는 2월 7일부터 8일까지 안양대리구청에서 청년 단원 105명이 참석한 가운데 기본단계 피정을 실시했다.

작년에 이어 올해도 청년 단원들을 위해, '서로 소통과 배려'를 통해 각자의 감정 조절을 충족하고 그 속에서 서로의 신앙심을 함께 나누는 시간과 수원교구 찬양 사도협의회(이제용 나타나엘 회장)가 진행하는 찬양 등 청년 단원 맞춤형 교육, 강의, 찬양미사, 단원 교육 등으로 피정이 구성됐다.

● 사진가회 피정



수원교구 사진가회는 2월 14일부터 15일까지 1박 2일로 수지성모 교육원에서 44명의 회원들이 참석

한 가운데 회원피정을 실시했다.

피정은 <하느님께서 보시니 참 좋았다(창세 1,31)>를 주제로, 김마리뤼다 수녀의 진행과 강의, 그리고 사진가회 월례회의와 파견미사로 이루어졌다.

김우정 신부는 미사강론에서 "예수님에게 치유를 청한 나병환자처럼 용기를 내서 다가갈 때 하느님이 도움을 베풀어 주신다"고 말하고, "내 자신을 위해서 무엇인가를 안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상대방을 위해서 무엇인가를 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 경제인회 '설맞이 기금 전달식'



수원교구 경제인회는 2월 13일 교구청에서 외롭고 소외된 이웃들이 설날의 정을 느낄 수 있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이주사목위원회와 교정사목위원회에 각 100만원씩 '설맞이 기금 전달식'을 가졌다.

전달식에는 박래준 회장을 비롯해 이래수 고문, 신종인 수석부회장, 최용휴 부회장이 함께했다.

의정부교구 평신도사도직단체협의회

● 정기총회 개최

천주교 의정부교구 평신도사도

직단체협의회(회장 문호, 담당사제 강신모)는 지난 12월 17일 교구청 3층 회의실에서 2014년 정기총회를 열었다.

성령쇄신봉사회 등 교구 17개 단체장을 비롯해 각 단체 임원 7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열린 이번 정기총회에서 한국천주교 평신도사도직단체협의회 상임위원회의(4월 10~11일) 개최와 의정부교구 사도직단체 핵심봉사자 피정(7월 4~5일) 등 2015년도 사업계획을 확정했다.

교구장 이기현 주교는 파견미사 강론을 통해 "교구 설정 10년 만에 평단협의 탄생은 교구 사제들뿐만 아니라 평신도들의 지대한 관심을 모았다."며 "교구 발전은 물론 사제들이 착한 목자가 될 수 있도록 평신도들의 적극적인 협조와 참여가 필요하다."고 당부했다.



● 단체 신년하례식



의정부교구 평신도사도직단체협의회(회장 문호, 담당사제 강신모)는 지난 1월 8일 오후 교구청 3층 회의실에서 신년 하례식을 가졌다. 교구 평단협 회장단과 17개 단체장

들이 참석한 가운데 열린 신년 하례식에서 성령쇄신봉사회, 꾸르실료, ME, 축구단 연합회, 빈첸시오 아 바오회, 다락방기도회, 가톨릭 국악합창단 등 7개 단체장들이 교구장 이기현 주교로부터 단체장 임명장을 받았다.

대구대교구 평신도사도직단체협의회

● 평단협 임원 무료급식소 일일 배식 봉사활동 참여기로



대구대교구 평단협(회장 박해룡, 담당사제 박영일, 이하 대구평단협)은 2015년 교구장 사목교서에서 강조된 '소외된 이들과 함께하는 교회'에 적극 부응하기 위해 올해 들어 매월 첫 토요일마다 대구역 부근에 위치한 무료급식소 '요셉의 집'에서 일일 배식 봉사활동을 펼치기로 결의하고 정기적으로 봉사에 임하고 있다. 1989년 문을 연 요셉의 집은 교구 사회복지시설로 예수성심시녀회가 운영을 시작한 이래 하루 800여 명의 노숙인들과 홀로 사는 노인들이 방문하고 있으며 배식은 오전 10시 10분부터 오후 1시까지로 주5일 무료급식을 실시하고 있다.

● 상임위원 월례회의 개최



대구평단협은 2월 4일 저녁 상임위원 월례회의를 가진 후 설날을 앞두고 상임위원들의 친선과 화합을 다지는 율놀이를 했다.

● "소외된 이들 돕기"



대구평단협과 평신도위원회(위원장 이호성, 담당사제 박영일)는 2014년 12월 19일 상임위원 부부동반 송년의 밤 행사를 개최하여 '소외된 이들 돕기'를 위해 모금한 286만원의 성금을 12월 28일 무료급식소 요셉의 집에 전달했다.

● 가톨릭미술가회 100주년 기념 주교좌범어대성당 성전건립 기금 전달

대구대교구 가톨릭미술가회(회장 고수영, 담당사제 김도울)는 2014년 12월 10일 교구장 조환길 대주교에게 100주년기념 주교좌범어대성당 성전건립기금 750만원을 전달했다. 이 기금은 지난 10월 7일부터 12일까지 열린 창립 40주

년 기념 및 100주년 기념 주교좌범 여대성당 성전건립기금 마련 '2014 사랑의 성전' 특별전(1974~2014)의 전신수익금이다.



● 전례꽃꽂이 연구회  
제5회 수료 작품전



전례꽃꽂이연구회(회장 최연순, 담당사제 박상용)의 제대꽃꽂이 봉사자를 위한 꽃꽂이 강좌반 제5회 수료 작품전이 2014년 12월 19일 축하식을 시작으로 21일까지 교구청 별관 1층 대화합실에서 열렸다.

● 가톨릭 미용인회  
'다문화가족을 위한 사랑나눔콘서트'



대구교구 가톨릭미용인회(회장 김순희, 담당사제 허용)는 12월 2일 대구 남구 대명남로에서 '다문화가족을 위한 사랑 나눔 콘서트'를 열

고 수익금을 카리타스 무지개사업단에 기부했다. 대구지역 가톨릭 성악인 '마중물 싱어즈'의 재능기부로 이루어진 이날 콘서트를 위해 미용인회 회원들이 콘서트 티켓을 판매하고 각자의 일터에서 후원금을 마련했다.

부산교구  
평신도사도직협의회

● 무료급식봉사



2014년 12월 14일 자선주일 부산교구 총대리 손삼석 주교와 장재봉 선교사목국장 신부, 부산교구 평신도사도직협의회(회장 하창식, 이하 부산평협) 상임위원들은 부산교구 신자들과 함께 무료 급식봉사에 일손을 보탰다.

로사리오 카리타스(상임이사 김영환 신부) 산하 단체인 신민회(회장 이철우)는 매주 일요일(하절기 오후 5시, 동절기 오후 4시 30분) 부산진역 앞에서 450여 명의 노숙인과 독거노인들에게 무료급식을 제공하고 있다.

● 2015년 부산교구 회장단 및 제단체장 연수

2015년 2월 1일 양산 정하상바오로영성관에서 부산교구 내 본

당 회장, 제단체장 23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2015년 회장단 연수'를 열었다. 이날 연수는 2015년 부산교구 사목지침 설명 및 문화 복음화의 해 특강, 부산교구·울산대리구 평협 정기총회와 부산교구 내 '1~12지구와 제단체장 그룹별 토의'가 있었으며, 부산교구 총대리 손삼석 주교 특강이 있었다. 손주교는 특강 중에 "〈문화 복음화의 해〉에 복음 전달자, 은총의 전달자가 되도록 노력하자."고 강조했다. 파견 미사를 주례한 교구장 황철수 주교는 미사 강론 중에 "우리는 성경 말씀대로 매일 정신과 마음을 올바르게 방향지우고, 정확하며 살아야 한다."고 말했다.



● 부산평협 제17호 발간



2015년 2월 1일(일) 부산평협은 소식지 '부산평협지 제17호'를 발간하여 양산 정하상바오로영성관에서 2015년 부산교구 회장단 및 제단체장 연수 때 2000권을 제작하여 이날 각 본당에 배부했다.

● 2014 선교, 교리교사, 사랑봉사상 시상식



2015년 2월 1일, 양산 정하상바오로영성관에서 개최된 2015년 부산교구 회장단 및 제단체장 연수 파견미사 때, 부산평협이 주관하여 해마다 각 본당을 대상으로 시행하는 선교상(개인, 본당, 단체), 평신도 교리교사상(30년, 10년, 5년), 사랑봉사상(개인, 단체) 시상식을 가졌다.

● 이정식(요한)과 양재현(마르티노)의 시성과 김범우(토마스)의 시복을 위한 도보성지순례



부산평협은 지난해 8월 16일 프란치스코 교황에 의해 순교자 124위 시복이 이뤄진 후, 이들 시복자, 특히 부산교구의 복자인 이정식(요한)과 양재현(마르티노)의 시성을 기원하고, 새롭게 청원된 순교자 김범우(토마스)의 시복을 위해서 도보성지순례 운동을 지속적으로 벌이기로 결정했다.

이에 따라 2014년 10월 25일 제

1차로 오전 9시 삼랑진역에서부터 김범우 순교자 묘소까지 2시간을 도보성지순례하고, 성모동굴성당에서 파견미사를 드렸으며, 이후 제2차로 2014년 11월 29일, 제3차로 2014년 12월 20일, 4차로 2015년 1월 31일 부산평협 임원들의 시범 도보성지순례가 있었다. 그동안의 준비 과정을 거쳐 2015년 2월 28일, 부산교구 전 교우들과 함께하는 매월 마지막 주 토요일 도보성지순례의 대장정을 새롭게 시작했다.

마산교구  
평신도사도직협의회

● 39사단 군장병 신자 짜장면 나눔



교구 평신도사도직협의회(회장 김덕곤, 담당사제 강영규, 이하 마산평협)는 지난해 12월 14일 육군 39사단 내 충성성당에서 군장병들을 위한 짜장면 나누기 행사를 실시했다. 이날 행사는 교중미사 후 군장병 신자 및 예비신자, 훈련병 등 300여 명이 참석하였으며, 군장병들은 평협 임원 및 푸른군대 회원들이 준비한 짜장면과 우동, 우유 등을 맛있게 먹었다. 김덕곤 회장은 "군장병들을 위한 선교활동을 통하여 군대가 교회의 새로운

희망의 장소임을 깨닫게 되었다. 또한 군대는 선교를 위한 교리교사 양성과 봉사활동 등 앞으로도 많은 도움이 필요한 곳이므로 신자들의 아낌없는 기도와 지원을 부탁드립니다."고 소감을 전했다.

● 제45차 정기총회



마산평협은 1월 31일(토) 마산 가톨릭교육관에서 185명의 위원들이 참석하여 '제45차 정기총회와 복음화운동 경축대회'를 개최했다.

이번 행사는 제1부 기념식(사도직활동지침서 발표)과 특강(배기현 총대리신부), 제2부 지구별 그룹토의와 제45차 정기총회, 제3부 복음화운동 경축대회 시상식과 파견미사로 프로그램을 준비하여 진행했다.

김덕곤 회장은 교구평신도사도직활동지침서의 발표에서 평신도운동의 방향을 교구설정 50주년에 맞추어 사업과 활동을 실천할 것을 요청하였으며, 지구별 그룹토의를 통하여 사도직지침서에 대한 구체적인 실천방법과 다양한 평신도의 소리를 나누는 계기를 만들었다.

정기총회는 지난 2014년의 사업에 대한 보고와 평가, 특별히 복자탄생 5위 경축대회의 특별행사에 대한 결산을 보고했으며 총회를



마치며 '평신도의 선언'인 우리의 다짐을 참석한 전 위원들이 봉헌하며 총회의 대미를 장식했다.

● 여성협의회 4분기 상임위원회



마산교구 여성협의회(회장 김연숙, 담당사제 강영구) 2014년 4분기 상임위원회가 12월 9일 창원 사파공동성당에서 열렸다. 교구 여성협의회 44주년 기념 책자 발간에 관한 보고와 10년 이상 인상하지 않았던 각 지구 연회비 인상, 그리고 2015년 1월 13일에 있을 제 41차 정기총회에 대한 내용을 논의했으며, 이날 회의 결과에 따라 교구 여성협의회 44주년 기념 책자는 2015년 1월 13일에 있을 정기총회 때 배부하는 것으로 결정했다.

각 지구 연회비는 연간 36만원에서 60만원으로 인상하기로 결정했다. 여성협의회 회장을 새로 선출했다.

● 여성협의회 정기총회

마산교구 여성협의회(회장 이갑순, 담당사제 배기현)는 1월 14일 교구청 1층 강당에서 제41차 정기총회를 개최했다. 이번 정기총회는 오전 10시부터 시작하여 음악회와 총회, 그리고 파견 미사로 진행됐다. 이날 총회에서는 담당 사제인 배기현 신부(교구 총대리)의 부

임 인사와 임기 4년을 마친 김연숙 회장(월영본당)의 이임 인사, 그리고 새롭게 선출된 이갑순 회장(칠암동본당)의 취임인사가 있었다. 또한 임원의 임기를 2년으로 하며 1회에 한해 연임할 수 있다는 조항을 3년 단임으로(회칙 제12조) 개정하는 것에 대해 회원들의 동의를 구했으며, 교구장 안명옥 주교의 승인을 받기로 했다. 개정된 회칙은 이번에 새로 선출된 회장부터 적용하기로 했다.



● 가톨릭문학 출판기념 감사 미사 및 신인상 시상식



마산교구 가톨릭문인회(회장 김연희, 담당사제 황인균)는 12월 13일 교구청 1층 강당에서 회원 및 가톨릭문학 신인상 수상자와 가족 3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가톨릭문학 제16집 <화해와 평화> 출판기념 감사 미사와 제8회 가톨릭문학 신인상 시상식 및 정기총회를 실시했다.

이날 신인상 시상식에서는 시 부문 당선 이규준 씨와 가작 김영미 씨, 수필 부문 당선 이현민 씨에

게 상패와 상금이 주어졌으며, 이후 정기총회를 개최하여 결산보고와 사업계획을 수립했다. 담당 황인균 신부는 감사미사 중 강론을 통해 "문인회원들은 글로써 주님을 찬미하고 있다. 앞으로도 신앙을 고취시키는 사명감을 가지고 그 역할을 다하기 바란다."라고 당부했다. 가톨릭문인회는 교구 설정 50주년 기금마련을 위해 가톨릭문학지를 판매하기로 했다. 교구청 내 성바오로서원에서 구입할 수 있다.

● 가톨릭 농민회원 전체연수



가톨릭 농민회 마산교구연합회(회장 정용우, 담당사제 박창균)는 12월 18일부터 19일까지 마산가톨릭교육관에서 농민회원 전체 연수를 실시했다. 이번 연수는 담당사제 박창균 신부의 미사 봉헌을 시작으로 진행됐으며, 연수 내용은 박창균 신부의 '가톨릭 농민운동의 3대 원리'에 대한 강의와 정용우 회장의 '분회활동에 대한 성찰'에 관한 강의, 그리고 마지막 시간에 김성환(회원물품위원장), 백현수(실무자) 회원의 '생산 계획서 작성요령 및 교구 활동보고' 시간을 가졌다.

광주대교구 평신도사도직협의회

● 교구장과 신년하례식



천주교광주대교구 평신도사도직협의회(회장 나현식, 담당사제 우원주, 이하 광주평협)는 1월 1일 광주가톨릭평생교육원에서 각 본당 사목협의회 및 교구단위 제 단체 회장단 3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교구장과 신년하례식을 가졌다. 먼저 천주의 성모 마리아 대축일 미사를 봉헌했고, 이어 신년하례식에서는 새해 첫날을 맞아 교구장 김희중 대주교와 총대리 옥현진 주교는 참석자와 일일이 악수를 나누었다.

● 교구평협(제44차) · 여성위원회 (제11차) 정기총회

광주평협은 1월 24일 광주가톨릭평생교육원 대건문화관에서 제 44차 정기총회를 개최했다. 본당 사목협의회 회장과 교구단위 제 단체 대표 8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개최된 이번 총회에서 '사목회 임원의 역할'이라는 주제로 담당 사제 우원주 신부의 특강에 이어 2014년도 사업실적 및 결산과 2015년도 사업계획 및 예산안을 심의하고 승인했다. 이날 여성위원회

(위원장 홍순덕)의 제11차 정기총회도 함께 개최됐다.



● 예비신자 교리교사회 겨울피정



천주교 광주대교구 예비신자 교리교사회(회장 이동운, 담당사제 우원주)는 지리산 피아골 피정의 집에서 겨울피정을 개최했다.

1월 17~18일, 24~25일, 1월 31일~2월 1일 3차에 걸쳐 교구 예비신자 교리교사 256명이 참석한 이번 피정은 '교종 프란치스코와 함께하는 신앙의 여정'이란 주제로 국춘심 방글라시아 수녀(성삼의 딸들 수녀회)의 지도로 진행됐다.

한편 3월 1일에는 광주가톨릭평생교육원 대건문화관에서 정기총회를 개최하고 2014년도 사업실적 및 결산과 2015년도 사업계획 및 예산안을 심의하고 승인했으며, 이어 실시된 회장 선출에서는 현 이동운 회장을 재선임했다.

● 꾸르실로 울뜨레아 임원연수회

천주교 광주대교구 꾸르실로 사

무국(주간 도상구, 담당사제 박상선)은 1월 10일 삼각동성당에서 2015년도 정기총회를 개최했다. 교구 꾸르실로 봉사자 40여 명이 참석한 이번 총회에서는 2014년도 사업실적 및 결산과 2015년도 사업계획 및 예산안을 심의하고 승인했으며, 이어 실시된 주간 선출에서는 현 도상구 주관을 재선임했다.

한편 1월 24~25일에는 화순 금호리조트에서 70개 본당 178명이 참석한 가운데 본당 울뜨레아 임원 연수회를 개최하고, 예수고난회 정영대 원장 신부의 특강 후 2015년 주요 사업을 논의했다.



한국가톨릭 교수협의회

한국가톨릭교수협의회는 1월 6일 서강대학교에서 담당 박홍 신부와 회장단 7명이 참석한 가운데 2015년 정기피정을 3월 28~29일 대전 정하상바로 피정의 집에서 개최하기로 하고 특강연사로 서공석 신부, 이판석 신부, 박민서 신부, 이경수 신부를 위촉하기로 확정했다. 아울러 지난 회계연도 회장 및 사무총장에 대한 감사패를 전달하기로 했다.

## 한국가톨릭 시각장애인선교협의회

### ● 2015년 장학금 수여

한국가톨릭시각장애인선교협의회는 2015년 2월 각 교구 시각장애인선교회를 통해 교구 내 맹학교 졸업생 혹은 안마수련원 수료생 중 모범 학생을 추천받아 총 7명에게 장학금을 수여했다. 장학금 수여는 상급학교에 진학하거나 사회로 나가는 시각장애 졸업생들을 격려하고, 비신자인 학생에게는 선교의 기회로 삼고자 위해서다.

특히 이번에는 2013년 신설된 청주 시각장애인선교회의 추천을 받은 청주맹학교 졸업생과 수원교구 내 장애인학교인 아름학교 졸업생이 처음으로 포함되어 더욱 뜻이 깊었다.

## 한국가톨릭 의사협회

### ● 교구회장단회의



한국가톨릭의사협회(회장 홍영선 교수)는 2014년 11월 29~30일 아드리아호텔(대전광역시 유성구)에서 김평만 대표담당사제 외 전국 7개 교구 회장단 18명이 참석한 가운데 회의를 진행했다.

회의는 2013년도 회장단회의 회의록 보고, 2014년도 회무 및 재무 보고, 2014년도 각 교구의회사회 활동 보고, 교구별 월례모임, 피정, 봉사 활동, 세미나 등 활동 발표, 협회지 발간에 대한 논의로 이어졌다. 공지사항으로는 2015년 3월 21~22일 1박 2일의 일정으로 대전가톨릭대학교 정하상교육회관에서 총회 및 피정, 심포지엄을 개최기로 했다.

## 한국가톨릭 간호사협회

### ● 제37회 정기대의원총회, 전국이사회 및 피정 실시



한국가톨릭간호사협회(회장 홍현자)는 2월 7~8일, 서울 합정동 마리스타 교육관에서 '복음의 기쁨을 사는 간호사'라는 주제로 제37회 정기대의원총회, 제57회 전국이사회 및 피정을 진행했다. 홍현자 회장을 비롯한 전국 14개 교구에서 대의원 118명이 참석했다.

말씀의 전례에 이어 가톨릭대학교 박준양 신부의 <복음의 기쁨>을 주제로 한 특강과 조별 나눔을 통하여 발표된 복음의 기쁨을 살아가기 위한 실천들을 공유하면서 많이 공감하고 뜻을 세우는 시간을 가졌다.

## 한국가톨릭 학교장회

### ● 가톨릭 학교 신자 교사 연수



한국 가톨릭학교 법인연합회 주관으로 2015년 1월 21~24일 교육자의 사명 새신이란 주제 아래 25명의 가톨릭 학교 특수, 초·중·고등학교의 신자 교사들이 인천교구 50주년기념 영성센터(갑곶순교성지)에서 피정을 겸한 연수를 했다. 이번 연수 피정은 한국 가톨릭 학교의 신자 교사들을 대상으로 교사로서의 사명의식을 일깨우며, 신앙 새신과 성장을 돕기 위해 열렸다. 피정 연수는 강의, 성찰, 묵상, 나눔 및 발표, 그리고 교육자로서의 사명문 작성 등으로 진행되었으며 참가자들에게는 모두 직무 연수 30시간이 주어졌다.

해마다 개최되는 가톨릭 학교 신자 교사 연수 가운데 교사와 신자로서 사명과 신앙심을 일깨우는 기회를 가졌고, 가톨릭 학교의 사명인 '복음화와 전인교육'을 위해서로 기도 안에서 협력하는 계기를 마련했다.

파견미사는 주교회의 교육위원회 위원장인 인천교구장 최기산 주교가 주례했다.